

노인의 생활전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현석¹ · 하정철²

¹²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접수 2011년 12월 14일, 수정 2012년 1월 10일, 게재확정 2012년 1월 15일

요약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향하고 있어 노인의 생활전반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한 “2008년도 노인 생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삶의 영역별 만족도, 소득원 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신체 및 정신건강 수준, 경제활동 및 경제수준, 여가활동, 사회적 관계 등의 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고령화, 구조방정식모형, 로지스틱회귀분석, 생활만족도.

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와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사망률은 저하되었다. 2010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11.0%이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0년 15.6%, 2030년 24.3%, 2050년에는 3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중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2019년에 도래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고령화가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문화적 변화와 인구고령화가 압축적으로 함께 발생함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경험하지 못한 폭과 속도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수반되는 제반 문제는 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국가적, 국제적 관심으로 대두되었으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최근 노인의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주영과 문제우, 2011).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기반의 노인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세대가 지닌 배경특성들 중 젊은 세대와 비교해 두드러지게 다른 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교육기회의 상대적 취약성이다. 우리나라 청년교육 수준은 OECD국들 중 최상이나 세대간 교육수준 격차가 제일 큰 국가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한국 노인들의 교육수준은 상대적, 절대적 수준에서 국제적, 국내적으로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정의, 2010). 초졸이하의 비중이 63%로 나타난 2010년 인구센서스와 유사하게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에서도 초졸이하의 비중이 64%로 나타났는데 교육기회의 상대적 취약성이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소득원유무 등에도 영향을 미쳐 생활만족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 2009).

¹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초빙전임강사.

² 교신저자: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통계학과, 조교수.

E-mail: jeicy@kmu.ac.kr

본 연구에서는 급속한 고령사회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검토하고, 노인생활실태와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의 개념과 이론들을 고찰하여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삶의 영역별 만족도, 소득원 등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노인생활실태와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개념과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3절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연구가설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2. 이론적 배경

2.1.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를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성재, 1986). 이러한 생활만족도가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정의, 2010; 강선경과 박희경 2008; 권철 등, 2006). Havighurst (1968)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

Rice와 Miller (1990)는 삶의 질을 일상생활의 기능, 사회역할의 수행, 생산성, 지적능력, 정서적 안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다측면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의 안녕 (well-being)한 상태로 개인이 경험하는 생활 전반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즉, 삶의 제반 영역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삶의 만족감을 누리며 생활하는 것을 노인의 삶의 질이라 하였다 (고승덕, 1996; 손화희 등, 2000; 김미령, 2008).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생활만족도의 수준 및 차이를 분석한 연구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남성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연구 (신현구, 2007), 여성 노인의 만족도가 높은 연구 (유정이, 2006),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본 연구 (권철 등, 2006)들이 있어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찾기 어렵다.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희숙과 이진현, 2007; 이주영과 문재우, 2011; 권철 등, 2006; 박근석 등 2004; 이정의, 2010). 결혼상태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철 등, 2006; 이주영과 문재우, 2011).

본 연구에서는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종교, 건강상태, 월소득 등의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라 생활 전반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2.2. 소득원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공적소득원과 사적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사적소득원은 다시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저축·임대·이자 소득·사적연금 등에 의한 자산소득, 그리고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소득원천의 영역에 따라 재정리하면, 근로 (work)를 통한 근로소득, 시장 (market)을 통한 자산소득, 가족 (family)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혹은 국가 (state)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으로 노인 소득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석재은과 김태완, 2000).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노인이 2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계층보다 빈곤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노인 수급자 중에 75%가 여성노인이고, 전체 여성 수급자 중에 33.2%가 여성노인으로 나타나 노인빈곤문제는 곧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화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보훈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교통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경로연금 등의 소득원유무별로 생활전반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더불어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에서 반응변수가 두 개의 범주에 대한 반응값으로 나타날 때 많이 사용하는 회귀분석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조장식, 2011; 박일수 등, 2010).

2.3. 삶의 영역별 만족도

고령화사회가 됨으로서 노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변화가 동시에 수반되어 가족이나 친척은 있지만 그 관계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노부모와 자녀간 가치관의 변화, 가족구성원 간의 개별화 경향으로 인하여 노인, 자녀, 손자녀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점차 빈약해짐으로써 노인들은 갈등이나 불만, 외로움 등을 느끼면서 소외감과 고독감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배나래와 박충선 (2009)의 연구에서는 삶의 질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생활수준, 자녀와의 친밀감, 자녀의 효의식, 사회참여, 지역사회환경 등으로 나타났다.

노년기 부부의 생활은 행복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보내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부부간의 이해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고독, 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자주 보내고, 사회적인 생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센터에서 댄스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 우울증과 질병이 생기는 보건의료문제와 빈곤, 경제적인 궁핍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받는 노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원하거나 소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도 증가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선결과제일 것이다. 노인 가운데 비교적 노후 생활을 즐기는 이들의 가장 큰 버팀목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이다. 권철 등 (2006)의 연구에서는 건강관리, 스트레스관리, 주관적 건강상태, 월평균 용돈, 결혼상태, 종교 등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정희 (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결혼상태와 소득수준,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규칙적 운동, 우울감 등 건강관련 변인들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한국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여가활동과 봉사활동은 가족, 이웃, 친구들과의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사회참여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의 심리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독, 우울, 소외감들을 떨쳐내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림금란 등 (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활동 중 경제활동과 여가활동에 참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신현구 (2007)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사회활동이 있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령 (2008)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지건강, 교육, 직업활동, 종교활동 등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었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여가 및 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 등의 삶의 영역별 만족도와 생활전반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더불어 복잡한 인과관계나 상호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최현석과 하정철, 2011; 최현석 등, 2011).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들의 생활전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현황과 보건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도움이 되는 기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3.1).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활전반 만족도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건강상태, 개인월소득총액	
소득원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 보훈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교통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경로연금	만족함 보통 만족하지 않음
삶의 영역별 만족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여가 및 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	

3.2. 가설 및 분석방법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와 건강 등의 삶의 영역별 만족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등의 소득원이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으로 빈도분석과 생활전반만족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소득원유무에 따른 분석으로 생활전반만족도와 교차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분석으로 분산분석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자료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는 2008년 4월 15일에서 2009년 2월 28일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 개인 15,14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 유무 및 동거유형,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상호지원,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기능상태 및 간병수발실태, 여가 및 사회활동, 노인복지서비스, 노후생활과 삶의 질, 생활환경의 영역에 대해 조사되었다. 층화 2단 집락추출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표본설계에 따른 개인별 가중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에서는 생활전반만족도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활전반만족도를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생활전반만족도에 ‘전혀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에 응답했으면 “만족안함”으로, ‘그런편이다’와 ‘매우그렇다’에 응답했으면 “만족함”으로, ‘그저그렇다’에 응답했으면 “보통”으로 분류하였다.

4.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으로 빈도분석과 생활전반의 만족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은 본 조사에 사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 42.6%, 여성 57.4%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에서 64세 미만이 28.7%, 70세 미만이 27.1%, 74세 미만이 20.3%, 79세 미만이 12.6%이고 80세 이상은 11.4%이다. 교육수준은 무학이 26.3%, 초졸이 37.7%, 중졸이 14.9%, 고졸이 13.4%, 대졸이 7.7%로 초졸 이하의 비중이 64%를 차지하였다. 평소의 건강상태는 건강하지 않는 편이 55.6%이고 건강한 편이 29.5%를 차지하였다. 결혼상태는 현재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66.9%로 나타났고, 개인월소득 총액은 100만원 미만이 78.1%를 차지하였다.

표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6,452	42.6
	여성	8,694	57.4
연령	60세~64세	4,348	28.7
	65세~69세	4,098	27.1
	70세~74세	3,069	20.3
	75세~79세	1,901	12.6
	80세 이상	1,731	11.4
교육수준	무학	3,984	26.3
	초졸	5,717	37.7
	중졸	2,251	14.9
	고졸	2,024	13.4
평소의 건강상태	대졸이상	1,169	7.7
	매우 건강하지 않다	1,868	12.4
	건강하지 않은 편	6,536	43.2
	보통이다	2,254	14.9
	건강한 편이다	4,019	26.6
결혼상태	매우 건강하다	437	2.9
	미혼	49	0.3
	기혼, 배우자 있음	10,592	69.9
	기혼, 배우자 사망	4,099	27.1
	기혼, 배우자와 별거 중	193	1.3
개인월소득총액	기혼, 배우자와 이혼	214	1.4
	50만원 미만	8,643	57.2
	50만원~100만원	3,161	20.9
	100만원~150만원	1,536	10.2
	150만원~200만원	721	4.8
	200만원 이상	1,061	7.0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생활전반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2에 주어져 있다. 성별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활전반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무학일 때 만족하지 않음이 많은 반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의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하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하지 않으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생활전반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생활전반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변수	항목	생활전반만족도빈도 (표준화잔차)			χ^2
		만족안함	보통	만족함	
	전체	2,736	6,556	5,748	
성별	남성	966 (-5.8)	2,670 (-2.3)	2,767 (6.5)	141.253**
	여성	1,770 (5.0)	3,886 (2.0)	2,981 (-5.6)	
연령	60세~64세	548 (-8.6)	1,789(-2.4)	2,002 (8.4)	361.068**
	65세~69세	709 (-1.2)	1,707 (-1.6)	1,656 (2.5)	
	70세~74세	603 (2.0)	1381 (1.3)	1,074 (-2.8)	
	75세~79세	432 (4.8)	886 (2.2)	570 (-5.6)	
	80세 이상	444 (7.9)	793 (2.2)	446 (-7.8)	
교육수준	무학	1,096 (14.2)	1,932 (5.3)	905 (-15.4)	971.076**
	초졸	1,017 (-0.6)	2,554 (1.5)	2,119 (-1.2)	
	중졸	341 (-3.3)	931 (-1.4)	966 (3.8)	
	고졸	206 (-8.4)	770 (-3.6)	1,037 (9.7)	
	대졸이상	76 (-9.3)	369 (-6.2)	721 (13.0)	
결혼상태	미혼	27 (6.1)	17 (-0.9)	5 (-3.2)	531.774**
	기혼, 배우자 있음	1,567 (-8.0)	4,389 (-2.9)	4,569 (8.6)	
	기혼, 배우자 사망	1,019 (10.3)	1,970 (4.8)	1,071 (-12.2)	
	기혼, 배우자와 별거 중	48 (2.2)	95 (1.2)	49 (-2.8)	
평소의 건강상태	기혼, 배우자와 이혼	76 (5.9)	84 (-1.0)	54 (-3.1)	2297.915**
	매우 건강하지 않다	841 (28.0)	730 (-2.3)	251 (-16.9)	
	건강하지 않은 편	1,391 (5.9)	3,095 (4.7)	2,038 (-9.1)	
	보통이다	229 (-8.9)	1,191 (6.8)	825 (-1.1)	
	건강한 편	261 (-17.4)	1,410(-8.1)	2,342 (20.6)	
개인월소득총액	매우 건강	15 (-7.2)	130 (-4.4)	292 (9.7)	911.948**
	50만원 미만	1,923 (9.3)	3,993 (4.3)	2,647(-11.0)	
	50만원~100만원	531 (-1.7)	1,394 (0.6)	1,221 (0.5)	
	100만원~150만원	174 (-6.2)	636 (-1.2)	719 (5.6)	
	150만원~200만원	49 (-7.2)	270 (-2.5)	401 (7.6)	
200만원 이상	54 (-10.0)	250 (-9.8)	754 (17.4)		

(*p<0.05, **p<0.01)

4.3. 소득원유무에 따른 분석

소득원의 유무별로 생활전반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성여부를 검정하였다. 노인이 어떠한 소득원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생활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많은 노인들의 소득원은 개인 사적이전소득 78.3%, 교통수당 66.7%, 국민연금 22.2%, 개인사업소득 19.9% 순이다.

소득원의 유무별로 생활전반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개인 근로소득, 개인 사업소득, 개인 금융소득, 개인부동산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금융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금이 있는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으로 만족함의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사적이전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식에게 경제력을 의존하고 있는 경우이고 교통수당, 장애수당, 경로연금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전반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유무에 따른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여부 (만족함, 만족안함)를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4). 생활전반 만족도가 “보통”인 자료를 제외하고 “만족함”과 “만족안함”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추정된 회귀계수 또는 오즈비를 보면 변인의 변화에 따라 생활전반만족도 확률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즉, 개인 근로소득의 오즈비를 해석하면 가구형태 만족도가 1 증가하면 생활전반에 만족할 확률이 1.431배라는 의미이다.

표 4.3 소득원유무별 생활전반만족도에 대한 교차분석

변수	항목	생활전반 만족도 빈도 (표준화잔차)			χ^2
		만족안함	보통	만족함	
	전체	2,736	6,556	5,748	
개인 근로소득	무	2,451 (1.8)	5,674 (0.1)	4,876 (-1.3)	35.852**
	유	285 (-4.5)	882 (-0.2)	872 (3.3)	
개인 사업소득	무	2,347 (3.4)	5,331 (1.2)	4,357 (-3.6)	127.710**
	유	389 (-6.7)	1,225 (-2.3)	1,391 (7.2)	
개인 금융소득	무	2,638 (3.2)	6,074 (1.7)	4,921 (-4)	311.686**
	유	97 (-9.9)	482 (-5.3)	827 (12.5)	
개인 부동산소득	무	2,585 (1.7)	6,113 (1.6)	5,050 (-2.8)	153.862**
	유	151 (-5.5)	442 (-5.1)	698 (9.2)	
개인 사적이전소득	무	688 (3.9)	1,233 (-5)	1,341 (2.7)	60.421**
	유	2,048 (-2)	5,323 (2.6)	4,407 (-1.4)	
국민연금	무	2,326 (4.3)	5,225 (1.8)	4,142 (-4.9)	205.401**
	유	410 (-8.1)	1,331 (-3.4)	1,606 (9.1)	
특수직역연금	무	2,686 (1.1)	6,408 (1.4)	5,353 (-2.3)	211.707**
	유	50 (-5.6)	148 (-6.9)	395 (11.2)	
개인연금	무	2,729 (0.3)	6,502 (0)	5,685 (-0.2)	16.144**
	유	7 (-3.3)	53 (-0.1)	63 (2.3)	
보훈급여	무	2,615 (-0.1)	6,302 (0.3)	5,479 (-0.3)	4.834
	유	121 (0.4)	254 (-1.6)	268 (1.4)	
실업급여	무	2,733 (0)	6,552 (0)	5,740 (0)	1.911
	유	3 (0.2)	4 (-1)	8 (0.9)	
산재급여	무	2,730 (0.1)	6,535 (0)	5,727 (0)	1.243
	유	6 (-0.9)	21 (0)	21 (0.6)	
교통수당	무	720 (-6.5)	2,081 (-2.4)	2,236 (7.1)	147.756**
	유	2,016 (4.6)	4,475 (1.7)	3,512 (-5)	
장애수당	무	2,610 (-1.4)	6,434 (0.1)	5,698 (0.8)	131.871**
	유	125 (9.7)	122 (-0.7)	50 (-6)	
장애아동부양수당	무	2,733 (0.1)	6,538 (0)	5,731 (0)	2.769
	유	3 (-1.5)	18 (0.4)	17 (0.7)	
경로연금	무	2,348 (-2.9)	5,953 (-0.3)	5,414 (2.4)	163.845**
	유	388 (9.5)	603 (1.1)	334 (-7.7)	

(*p<0.05, **p<0.01)

15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보훈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장애아동부양의 4개의 소득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1개의 소득원은 생활전반만족도 유의하게 판정되었다. 그러나 교통수당과 장애수당, 경로연금에 대한 오즈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회귀계수가 음수로 나타나 수급하는 사람들이 수급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생활전반에 만족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 따른 분석

생활전반만족도 수준에 따른 각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영역별 만족도는 생활전반만족도와 마찬가지로 5점 척도로 조사되었는데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자산(주관적 노인개인 경제상태 만족도), 경제활동(현재 하는 일 만족도), 건강상태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만족도, 가구형태 만족도 등의 결측이 많지 않은 12개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생활전반만족도 수준에 따른 각 영역별 만족도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다. 각 영역별 변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전반만족여부에 따라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경제상태, 경제활동, 건강상태, 의료서비스 이용,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4.4 소득원유무에 따른 생활전반만족도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계수 및 오즈비 (만족 안함=0, 만족함=1)

	B	S.E.	p값	Exp(B)
개인 근로소득 (무=0, 유=1)	.358	.077	.000	1.431
개인 사업소득 (무=0, 유=1)	.508	.068	.000	1.662
개인 금융소득 (무=0, 유=1)	1.233	.113	.000	3.430
개인 부동산소득 (무=0, 유=1)	.602	.097	.000	1.826
개인 사적이전소득 (무=0, 유=1)	.184	.058	.002	1.202
국민연금 (무=0, 유=1)	.479	.066	.000	1.615
특수지역연금 (무=0, 유=1)	1.263	.156	.000	3.538
개인연금 (무=0, 유=1)	1.199	.413	.004	3.316
보훈급여 (무=0, 유=1)	.094	.119	.429	1.099
실업급여 (무=0, 유=1)	.133	.717	.853	1.142
산재급여 (무=0, 유=1)	.616	.470	.190	1.852
교통수당 (무=0, 유=1)	-.403	.056	.000	.668
장애수당 (무=0, 유=1)	-1.453	.176	.000	.234
장애아동부양수당 (무=0, 유=1)	.986	.606	.104	2.681
경로연금 (무=0, 유=1)	-.554	.083	.000	.575
상수항 (무=0, 유=1)	.509	.067	.000	1.664

표 4.5 생활전반만족도에 따른 각 영역별 만족도

	생활전반만족도 (평균±표준편차)			p값
	만족안함	보통	만족함	
동거자녀 관계 만족도 (X_1)	3.41±0.95	3.73±0.71	4.00±0.66	<0.001
비동거자녀 관계 만족도 (X_2)	3.44±0.87	3.79±0.68	4.03±0.56	<0.001
손자녀 관계 만족도 (X_3)	3.57±0.83	3.84±0.67	4.09±0.59	<0.001
배우자 관계 만족 (X_4)	3.72±1.06	3.94±0.83	4.09±0.74	<0.001
형제·자매 및 친인척과의 관계만족도 (X_5)	3.16±0.87	3.48±0.71	3.74±0.68	<0.001
친구·이웃 관계 만족도 (X_6)	3.71±0.61	3.80±0.56	3.94±0.55	<0.001
주관적인 본인 경제상태 만족도 (X_7)	2.01±0.9	2.68±0.89	3.22±0.93	<0.001
현재 하는 일 만족도 (X_8)	2.50±0.94	3.03±0.81	3.47±0.85	<0.001
건강상태 만족 (X_9)	1.99±0.92	2.62±0.99	3.09±1.04	<0.001
의료서비스 만족도 (X_{10})	3.48±0.84	3.63±0.71	3.84±0.66	<0.001
현재 여가 및 사회활동의 만족도 (X_{11})	2.7±0.96	3.27±0.77	3.65±0.79	<0.001
가구형태 만족도 (X_{12})	3.03±0.95	3.59±0.72	3.97±0.62	<0.001

삶의 영역별 만족도와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전반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2개의 영역별 만족도 변수를 독립변수로 고려하였으나 결측이 많은 변수 (X_1 등)를 제외하고 7개의 독립변수가 생활전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가를 각 독립변수에 결측값이 존재하지 않는 7357건에 대해 여러 요인들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요인이 생활전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에 사용된 요인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측정변수들을 선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법으로 주성요인추출과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인이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각회전방식인 오블리민 (oblimin) 회전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된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전반적으로 분석에 필요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분석결과 3개의 요인으로 묶여졌으며 건강상태 만족도, 본인 경제상태 만족도, 현재 여가 및 사회활동의 만족도로 이루어진 주관적인 만족도 요인과 배우자 관계 만족도, 가구형태 만족도, 비동거자녀

관계 만족도로 이루어진 가족관계 만족도 요인, 의료서비스만족도의 의료만족도의 3개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요인과 생활전반의 만족여부의 관계를 밝히고자 그림 4.1과 같이 구조방정식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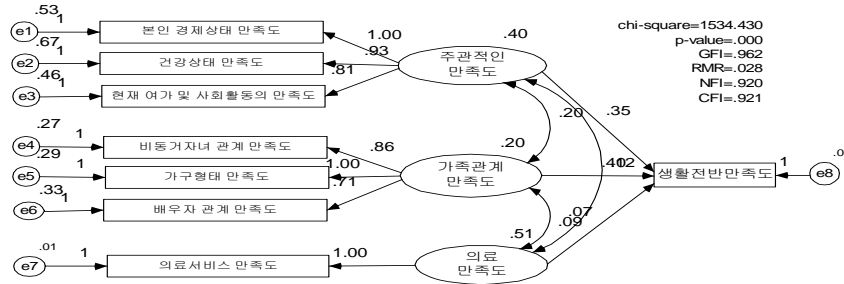


그림 4.1 구조방정식모형

자료가 가정된 구조방정식 모형에 얼마나 잘 적합되었는지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0.962, NFI는 0.920, RESEA는 0.028로 일반적인 적합도기준치와 비교할 때 수용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

가설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t값	p값
가족관계 만족도→생활전반만족도	0.396	0.449	0.018	22.448	<0.001
의료 만족도→생활전반만족도	0.071	0.129	0.004	18.08	<0.001
주관적인 만족도→생활전반만족도	0.351	0.561	0.012	28.557	<0.001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생활전반만족도는 경로계수 값이 0.396 (t값=22.448)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생활전반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전반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인 만족도와 생활전반만족도는 경로계수 값이 0.351 (t값=28.557)로 주관적인 만족도가 생활전반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전반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료만족도와 생활전반만족도는 경로계수 값이 0.071 (t값=18.08)로 의료만족도가 생활전반만족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전반만족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표준화회귀계수를 보면 주관적인 만족도가 생활전반만족도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561, 가족관계 만족도가 생활전반만족도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449, 의료 만족도가 생활전반만족도에 미치는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0.129로 나타나 주관적인 만족도가 생활전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소득원유무, 삶의 영역별 만족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규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일 때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둘째, 개인 근로소득, 개인 사업소득, 개인 금융소득, 개인부동산소득,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개인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면 생활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 사적이전소득, 교통수당, 장애수당, 경로연금과 같은 소득원이 있는 집단은 생활전반에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관계 만족도요인 (배우자 관계 만족도, 가구형태 만족도, 비동거자녀 관계 만족도), 주관적인 만족도 요인 (건강상태 만족도, 본인 경제상태 만족도, 현재 여가 및 사회활동의 만족도),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만족할수록 생활전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령계층의 증가가 소득상실과 건강악화로 인한 빈곤집단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령계층 생활안정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노인의 생활전반에 관한 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식 및 생활형태의 변화를 파악하여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정책수립 등 정책적, 실천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경, 박희경 (2008). 친구망과 심리적 지지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8**, 117-139.
- 강희숙, 이진현 (2007). 농촌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1**, 51-64.
- 권철, 남철현, 황해석, 정한태, 허순희, 민경진, 김순 (2006).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2**, 66-74.
- 김미령 (2008). 여성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한국노년학>, **28**, 33-48.
- 김영화, 공정원, 박태정, 장경은 (2005).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서울.
- 림금란, 김희경, 안정선 (2011).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삶의 질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활동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1**, 33-47.
- 박군석, 한덕용, 이주일 (2004). 한국 노인의 신체건강과 주관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9**, 441-470.
- 박일수, 한준태, 강석복, 지재훈 (2010).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위암 예측모형 개발과 활용.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1**, 1253-1261
- 배나래, 박충선(2009).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연구. <한국노년학>, **29**, 761-779.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서울.
- 석재은, 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 신현구 (2007). 노동시장 은퇴자의 은퇴만족도 및 삶의만족도. <노동리뷰>, **27**, 81-93.
- 유정이 (2006).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 건강, 배우자 요인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연구>, **22**, 241-254.
- 이정의 (2010). 한국노인의 교육수준별 생활만족 결정요인: 사회적 관계 및 참여, 건강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0**, 709-726.
- 이주영, 문재우 (2011). 노인의 정신건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연구>, **37**, 45-57.
- 조장식 (2011). 학생정보를 이용한 대출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849-856.
- 최성재 (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42**, 233-256.

- 최현석, 이영선, 하정철 (2011).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취업스트레스가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313-322.
- 최현석, 하정철 (2011). 대학생의 인터넷중독 유발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 437-448.
- Havighurst, R. J. (1968). *Middle age and ag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Rice, R. W. and Miller, M. D. (1990). Developing a model for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i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Use of hypertension as an example. *Southern Medical Journal*, **83**, 941-946.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yun Seok Choi¹ · Jeongcheol Ha²

¹²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Received 14 December 2011, revised 10 January 2012, accepted 15 January 2012

Abstract

Since Korea is moving towards the aged society, increasing is the social attention on overall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ged people, categorized satisfactions and sources of income, based on the 2008 national survey data of the actual living condition of the elderly and welfare need. We found that many factors have significant impac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level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economic level.

Keywords: Life satisfaction, logistic regression, population aging,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¹ Full time lecturer, 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²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E-mail: jeicy@kmu.ac.kr